

# 광양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신 중

### 여성친화도시 인증 추진...워크숍 열고 인프라 구축 논의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늘리고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세 지역 안전지도 제작·여성기업인 지원 등 정책 반영키로

광양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의 변신을 준비중이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도전하기 위한 여성친화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육 재단을 설립,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에 이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 브랜드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 10월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키로 하고 인증 획득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뜻한다.

광양시는 우선,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광양시는 29개 부서에서 운영중인 54개 위원회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전년도(위촉직 위원 790명 중 180명·22.9%)에 견줘 여성위원 비율(올 6월 763명 중 231명·30%)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5급(상당)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올 7월 현재 14.5%(9명)으로, 지난해(5급 이상 5명·8.1%)보다 늘었고 기획·예산·인

사부서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도 33.3%(6명 중 2명)로 전년도(6명 중 1명·16.7%)에 비해 증가하는 등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하는데도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개정하고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및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갖는 등 도시 조성의지를 알리는 한편, 민·관 협력 사업 분야에서 여성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57명)을 구성해 활동중이다.

시민참여단은 최근 공원과 도심지에 설치된 여성안심 비상벨 45개소를 찾아 오작동 여부, 통신상태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펼쳤다.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광양시는 아울러 현장 중심형 여성친화정책 발굴, 추진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광양시는 38개 부서가 진행할만한 여성친화정책 159개를 분석,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70개 과제를 압축한 상태다. 광양시는 부처 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현장 중심형 정책을 최종 확정,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워크숍을 열고 여성친화정책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가 하면, 차별화된 사업도 모색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역 안전지도 제작', '여성안심 게스트하우스 지정',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기업인 지원사업', '여성친화공간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도시설계' 등은 여성정책에 새롭게 반영



광양시는 최근 워크숍을 열고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필요한 친화적 행정 기반 구축 방안과 정책 등을 논의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도심에 설치된 여성안심 비상벨의 작동 상태, 편의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양시 제공>

영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나주시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추진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중마~금호 해상보도교 무지개다리

## 여가부 매년 11월 공모...인증 뎀 5년간 지위 유지 광주 4개 자치구·전남 여수·강진·순천 3곳 지정

### 여성친화도시 인증 어떻게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지역정책 수립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여성·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인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11월 공모하고 인증요건을 충족한 도시를 선정하면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7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광주에서는 동·서·남·북구 등 4개 자치구가 지난 2011년 지정됐다가 지난해 심사를 통과, 재지정됐다. 광산구는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남에서는 여수·강진·순천 등 3곳이 지정을 받은 상태. 장흥도 2011년 지정됐다가 작년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운동주의 별 헤는 밤

운동주 탄생 100년 맞아 오늘·내일 이틀간 페스티벌 1000인 견배·100인 시 낭송·통기타 가수 공연 등 다채

운동주 시인(왼쪽)과 정병욱 전 교수

운동주 탄생 100주년과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발견 72주년을 맞아 문학 축제가 11일부터 이틀간 광양시 해양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8월의 별 헤는 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행사는 운동주와 광양시와의 소중한 인연을 가지 있는 문화자원으로 브랜드화하고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운동주 시인을 오늘의 시간으로 불러내 그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시집을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1917년 북간도에서 태어난 운동주 시인은 광양 땅을 밟아본 적 없지만 그의 시는 진월면 정병욱 가옥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정병욱(1922~1985) 가옥은 운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가 보관돼 있던 곳으로, 그는 1940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선배인 운동주를 만났다. 평소 두 사람은 문학에 이야기하며 각별한 우정을 쌓았다.

전야제 행사는 11일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오후 8시 11분 펼쳐지는 '운동주 추모 1000인 견배 퍼포먼스'가 눈길을 끈다. 12일에는 '운동주 추모 100인 시 낭송 퍼포먼스', '운동주 시 필사하기 체험' 등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추모행사도 마련됐다. 통기타 가수들의 초청공연, 인디밴드와 젊은층을 위한 EDM 공연으로 채워질 음악 행사도 마련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운동주의 생애와 시를 추모하고 그가 남긴 아름다운 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 시립예술단 거리 공연 보고 무더위 날리세요

16·19·25일 잇따라 열려

무더위로 지친 광양시민들을 위한 시립예술단의 거리 공연이 잇따라 펼쳐진다. 광양시립예술단은 오는 16일 오후 8시 중마동 하나로마트 앞에서 거리공연을 연다. 시립예술단은 전통 국악의 현대화 프로그램 및 대중가요의 클래식화를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익숙한 대중가요인 '광화문 연가'와 'Moon river', '해변으로 가요'와 팝송 등을 관현악과 합창단 공연으로 접할 수 있다.

예술단의 거리 공연은 오는 19일(오후 7시 10분) 광양을 서천면 수변무대, 25일(오후 8시) 중마동 하나로마트 등에서 잇따라 열린다.

광양시 관계자는 "거리공연을 통해 지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미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